

# “잊지 않겠습니다”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어도 합동분향소에는 계속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애도기간은 지난 4일까지였지만 유가족 등의 요청에 따라 기존 5·18민주광장에 설치했던 합동분향소를 이날 동구 전일빌딩2451층으로 옮겨 연장 운영한다.

전일빌딩 합동분향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이보다 이른 오전 10시경부터 희생자 추모를 위한 발걸음이 끊기지 않았다.

합동분향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아래에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위패가 안치됐다.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조성된 분향소 한쪽 벽에는 '우리가 마음 속으로 항상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켜줄게요', '나쁜 기억은 모두 다 잊으시고 행복한 기억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100억 항상 따듯한 모습 기억할게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감사했습니다' 등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었다. 분향소를 찾은 이들은 위패에 적힌 이

## 광주시, 전일빌딩 1층으로 옮겨 2월 중순까지 개방 국가애도기간 끝났지만 추모 행렬 하루종일 이어져 179명 위패 안치...포스트잇·방명록 등 애도 메시지

생자들의 이름을 살폈으며, 일부는 이름을 불러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발걸음을 했고,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

동구 소재동에서 온 오승길(81)씨는 "옆집 지인이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조문하러 왔다"며 "느닷없이 벌어진 사고가 너무나 안타깝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속스럽게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온 문지원(26)씨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아 당시 온종일 멍했던 기억이 난다. 뉴스도 차마 볼 수 없었고 유가족들의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5·18민주화운동을 알고 싶어 친구와 함께 광주를 찾았다가 희생자들을 기리는 분향소 소식을 듣고 왔다. 국가가 반드시 사고 원인 등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일부 유가족들도

떨리는 손으로 헌화하고 위패에 적힌 이름을 보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들을 지켜보던 다른 조문객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 17개 기관 대표들도 이날 오후 2시경 분향소를 방문해 합동 참배했다.

전일빌딩245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희생자들의 49재인 오는 2월15일까지 운영되며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주성학 기자

## 김지사 “한파 대비·유가족 지원 만전”

트라우마 상담 연계 등 지원·안전사고 대책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 현황과 유가족 지원 내용을 살피고 한파·대설 관련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모든 희생자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심껏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히 유가족들의 상처가 깊고 큰 만큼 향후 트라우마 상담 연계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내용 등을 마련해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는 오는 7-9일 대설·한파에 대비해 따라 유가족과 분향소를 방문하는 추모객 교통 불편 해소, 유가족 방한용품 지급 등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제설 장비 32대, 제설 인력 228명 등을 투입하고 무안공항과 분향소 인근 도로에 4대의 제설 차량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제설 작업과 실외분향소 고정을 철저히 하는 등 유가족과 조문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김재정 기자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유가족 불편 최소화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진상규명 유족 참여권 보장”

광주시의회 수습지원단 촉구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지난 4일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원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단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절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참사의 책임 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항공분과 5인 중 상임위원 역시 국토부 현직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지원단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의 의견 진술 등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지원단은 또 "항공철도조사법 제20조에 따라 조사위는 사고 조사를 위해 분야별 관계자를 포함해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 진행 상황 등 관련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단은 "조사단 활동에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변은진 기자

# 세계 50여개 도시 ‘제주항공 참사’ 애도 동참

美·中 등 광주시에 추모 서한·근조화환 보내 유가족 위로

광주시의 해외 자매·우호 도시들이 서한을 보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시민을 위로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와 중국 광저우·창저시, 우호도시인 중국 다롄·원저우·취안저우·칭다오시, 업무협정(MOU)도시인 중국 옌청시 등 8개 도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주광주중국총영사관

등에서도 서한문을 보내왔다.

또 미주호남향우회총연합회 등 세계 45곳에서 근조화환을 보내 유가족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1982년부터 광주시와 자매도시인 연을 맺고 있는 미국 샌안토니오시 론 니렌버그 시장은 "샌안토니오는 함께 하 나된 마음으로 지지를 보낸다"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김주유 샌안토니오한인회장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참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대한민국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샌안토니오한인회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시와 자매도시인 광저우시와 창저시, 우호도시 다롄시, 원저우시, 취안저우시, 칭다오시 업무협정(MOU)도시 옌청시 등 중국 7개 지방정부에서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

지난해 부임해 광주시를 방문한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도 서한문을 보내 "비극적인 사건은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촉망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줬다. 저희 또한 깊은 상심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며 "이스라엘 국민이 광주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은 서한문과 함께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구정지 총영사는 "참담한 시기에 우리는 모든 광주시민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며 "중국총영사관과 지역 내 중국국민 일동을 대표해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미주호남향우회총연합회 등 세계호남향우회 각국 지회 45개소에서도 근조화환을 보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강기정 시장은 "연말에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지역사회가 큰 슬픔에 빠져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위로의 마음에 힘을 내게 된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현 상황을 극복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변은진 기자




##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실천에 앞장서는 사람들

국제로타리는 1905년에 '초아의 봉사'를 모토로 창설된 최초의 봉사단체입니다. 전 세계 로타리 회원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고 문해력 증진, 질병퇴치, 기아 및 빈곤 감소, 안전한 식수 제공, 모자보건,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세계이해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전남서)  
2024-25년도 총재  
진화 박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부권 9개 시·군(화순, 나주,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신안)에 있는 90개 클럽을 관리하는 지구로 3,600명의 로타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48(농성동)  
TEL. 062-223-3710  
FAX. 062-223-3738  
E-mail. ri3710@hanmail.net

